

6/2 (행 1:3-11)

우제윤

제목: 존재감 뚜렷한 사명자

1)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2) 증인이 되리라

**한줄요약: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

참고: NICNT 성경주석, HOW 주석, 매일성경전집

요즘은 맛집이 대세입니다.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죠. 이 인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산 속 중턱에 있는 맛집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갈 것 같은 맛집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음식점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존재감이 뚜렷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그의 존재는 드러납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그의 존재감은 명확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처럼 존재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고 이제 복음이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확장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행하신 첫 사역은 바로 ‘복음전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의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켜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을 보내시기로 약속한 바를 가리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자기보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를 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놓인 공생애를 위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의 ‘몇날이 못되어’ 성부께서는 사역을 앞둔 제자들에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온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명이 무엇이지 생각하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러 전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과 행동에서 생각에서 말에서든지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자 우리가 실천 해야하는 바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며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9 (행 9:1-9)

우제윤

제목: 각자의 십자가

1) 사울의 회심

2) 하나님의 부르심

**한줄요약: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 특화된 그리스도인**

참고: NICNT 성경주석, HOW 주석, BST주석

무언가를 베고 자를 때는 날카로운 ‘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검이 될수도, 낫이 될수도, 도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베고 자를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특화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은 만들어진 모양도 다릅니다. 도끼는 나무를 베어야 하니 둔탁하고 무겁게 내려칠 수 있는 힘이 있게 만들어지고, 검은 갑옷을 뚫을 수 있게 무게와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낫은 여러 풀들을 한번에 베어버릴 수 있게 긴 조금의 타원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도구는 용도에 맞게 특화되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악한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그의 회심으로 사울이 바울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사도로 부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제국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었고 로마제국이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시민이었기에 로마의 길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길은 유럽으로 뻗어가기 너무 좋은 방법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헬라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화된 상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준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할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회심시키셨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각자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귀하게 쓰이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16 (행 15:1-11)

우제윤

제목: 값없이

1) give and take

2) 댓가없이 주신 구원

한줄요약: 값없이 받은 것 값없이 주자

참고: NICNT 성경주석, HOW 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give and take’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일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으니 나도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겠다. 결혼 축의금을 5만원 정도를 받았으니 나도 5만원 정도를 줘야겠다. 내가 받은 만큼만 너에게 베풀겠다. 내가 이 정도는 베풀었으니 너는 이 정도는 해줘야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give and take’가 신앙의 관점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대항하여서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오늘 날의 성도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예배, 봉사, 기도 등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 말속에 있는 의미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들은 물거품처럼 여겨지고, 내가 지금까지 전도, 예배, 봉사, 기도의 헌신은 전부 어디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냐고 얘기하고 자신이 구원까지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런 ‘give and take’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로 헌신을 했다면 나에게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복을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복이 이 정도니까 나도 이 정도의 헌신을 하겠다고요. 우리는 이런 ‘give and take’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값없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23 (행 20:17-35)

우제윤

제목: 교회를 위하여

1)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고

2) 본을 보여라

**한줄요약: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증거하고 본을 보이자**

참고: NICNT 성경주석, HOW 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바울은 에베소서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합니다(18). 바울의 원래 성격은 과격하고 폭력적인 발언(갈 5:12)도 서슴지 않고 진리를 중시하던 사람이었기에 털털함과 강인함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겸손을 보이고 눈물을 보이고 참고 인내하는 모습은 바울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절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의 모습입니다. 이 3가지 모습인 1) 겸손과 2) 눈물과 3) 시험을 견디는 것을 통하여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20-21절에서부터는 목회에 대해 좀 더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는 자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죄들을 깊이 뉘우치고 버리는 것과 또한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향하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와 믿음은 서로 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회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가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교회 안에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삶이 교회를 위한 삶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믿음과 삶의 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본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회개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더 나아가 세상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30 (행 28:23-31)

우제윤

제목: 승리, 하나님의 나라

1) 믿지 않는 사람들

2)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한줄요약: 하나님나라의 선포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자**

참고: NICNT 성경주석, HOW 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어본다면 1번씩 다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겪는 고통입니다. 자신은 이 길이 맞다고 이런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생각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는 사람은 아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로마라는 각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강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서 박탈된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셜(marshall)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진단하는데, 그것을 듣고 수용하기는 고통스러우나 동시에 그 상처는 치유를 가져온다. 일단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 그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때가 온다. 그것은 복음을 경시하는 자들에게 대한 무서운 경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결론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승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승리한 전쟁의 끝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 나라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시고 만들어진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불신, 세상사람들의 현혹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